

'성'의 프리즘에 비춰본 풍속도

진지한 탐구에서 흥미위주 책까지 번역서 일색

성(性)은 품고 있는 뜻이 워낙 넓은 탓에 여러 갈래로 접근이 가능하다. 철학·사회학·생물학·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을 탐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틀거지는 역사를 매개로 한 풍속학적 접근이다. 《풍속의 역사》로 대표되는 성풍속서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얼마 안된다. 김영사의 초창기 출판물인 레이 탄나힐의 《성의 역사》를 시작으로 삼아도 겨우 십년 남짓. 몇몇 출판사의 꾸준한 작업 덕분에 이제는 서점에서 성풍속서 코너를 따로 둘 수 있을 정도의 출판장르로 발돋움했다.

진지한 '성풍속사'의 고전들

텍스트 선정에서나 진지함에서 도서출판 까치(대표 박종만)가 첫손 꼽힌다. 에두아르트 폭스의 《풍속의 역사》로 포문을 연 데 이어 파울 프리샤우어의 《세계풍속사》와 R.H. 반 홀리의 《중국성풍속사》를 잇달아 펴냈다.

폭스는 “도덕이란 각각의 특수한 계급이

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풍속적 접근이 가장 친숙하다. 《풍속의 역사》 이후 성풍속서는 출판장르의 하나로 발돋움했다. 대표적 출판사는 까치, 동문선, 산수야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20여종의 성풍속서는 모두 번역본으로 한국의 성풍속을 다룬 책의 출간이 기대된다.

익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모든 삶의 이해 관계에 기초한 사고방식”이라고 전제하고, 성도덕 역시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실증했다. 폭스의 책은 저자의 관점과 풍부한 예증이 돋보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르네상스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성풍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서 19세기 말에, 공간적으로는 유럽에 한정하고 있다. 프리샤우어의 《세계풍속사》는 제목처럼 유럽에서부터 중국, 일본, 이슬람 세계의 성풍속을 고대에서 현재까지 관류한다. 《중국성풍속사》는 고대 중국인의 성의식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라는데에 의의가 있다.

도서출판 동문선(대표 신성대)은 ‘문예신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성을 설정, 성관련서를 속속 출간하고 있다. 성풍속에 관한 책의 비중도 작지 않다. 《성의 역사》 《성과 결혼의 민족학》 《침실의 문화사》가 그것들이다. 장 루이 플라드랭의 《성의 역사》는 아날학파의 관점에서 유럽의 성풍속을 고찰했다. 일관된 기조로 씌어진 개설서나 통사가 아니라 각장이 별개인 연구논문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날학과 특유의 사례 취증이 돋보인다. 《성과 결혼의 민족학》은 일본인 인류학자 와다 쇼호헤이가 결혼제도를 통해 본 성의 양상이다. 성생활의 공간인 침실을 통해서 본 세계사라고도 볼 수 있는 파스칼 디비의 《침실의 문화사》는 충실한 연구로 성풍속의 사회상을 드러내 준다.

새로운 시각 보이는 책도

도서출판 산수야(대표 류인덕)는 ‘세계의 기사’ 시리즈를 통해 《그리스 성풍속사》 《이야기 성풍속사》 《로마 성풍속사》 《인도의 성풍속》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이야기 성풍속사》는 브랑툼이 유럽 각지를 돌면서

보고들은 연애사건을 기록한 성풍속 문학서로 이 분야의 고전이다. 폭스나 프리샤우어, 파스칼 디비의 책에도 브랑툼이 즐겨 인용되는 것을 보면 그의 선구적 업적을 짐작할 수 있다. 예문서원(대표 오정혜)도 《중국인의 성》 《인도인의 성》 《일본인의 성》 등 성풍속을 나라별로 추적한 일련의 책을 펴냈다.

지난해까지 출간된 이같은 성풍속서는 크게 두갈래로 나눌 수 있다. 까치와 동문선에서 나온 책들이 폭스, 프리샤우어, 디비 같은 성풍속사의 대가의 역저를 번역 소개한 진지한 작업이었다면, 산수야와 예문서원에서 나온 책들은 흥미로운 성풍속을 지역별로 탐구하는 데 치중한 것이 특색이다.

최근에 나온 책일수록 불필요한 도판을 수록하거나 번역이 부실한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는데, 이전의 책들보다 순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있기는 하다.

《육체의 문화사》(의암출판)는 원서의 부제를 번역본의 제목으로 썼는데, 원제는 (신체의) ‘구조와 운명’이다. 저자 역시 프로이트가 사용한 말에서 빌려 온 것으로 이 책은 정신분석에 기대고 있지만 미술과 문학을 통한 육체의 분석이 돋보인다. D. H. 로렌스, 헨리 밀러, 사르트르의 작품에 나타난 성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로렌스 해석이 독특하다. 가정의 권력관계 재편성이 남녀관계의 재

화제의 책

컴퓨터과학 시대의 기본용어 총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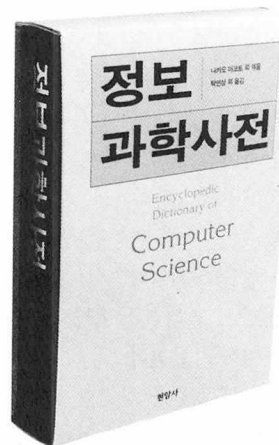
《정보과학사전》 출간

컴퓨터 정보과학의 영역이 날로 확대해가는 이즈음, 정보과학의 전체상과 함께 기본용어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 종합사전이 나와 주목된다.

이 사전은 정보과학에 관련된 용어의 단순한 뜻풀이에 그치지보다 그 의미를 전체의 개념체계와 다른 개념 사이의 관계 속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편집 의도가 돋보인다. 일본의 이와나미 서점에서 90년에 발간한 것을 옮겨 펴냈다.

기본용어 4100여개의 항목을 ‘기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식 시스템’ ‘정보와 사회’의 5개 대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0개 중·소 분야로 세분했다.

특히 ‘용어트리’(각 용어간의 개념관계를 나타내는 나뭇가지식 그림)의 독특한 체



계를 도입해 각 소항목의 용어가 전체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 단순한 용어사전에서 더 나아가 정보과학 입문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점도 특징. (탁연상 외 옮김) 현암사/A5/1832/50,000원

완고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를 읽고

권택영 · 경희대 영문과 교수

편성으로, 이로 인해 전쟁이 촉발됐다는 성 갈등에 의한 전쟁발생론에는 다소 비약이 있지만, 1차대전 이후 남녀관계의 엄청난 변화의 기폭제라는 관찰은 유효하다. 비단 전쟁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인습에 대한 혁명적인 시각교정, 자연과학에서의 근본이론 수정, 정치체제의 침식작용 등이 성도덕 개혁의 충격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이런 정황의 반영이라는 해석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저자와 책에 관한 소개가 없다는 점이다. 리처드 컨이라는 이름 외에는 발간 연도를 비롯한 책에 관한 정보가 없다. 옮긴이의 직업과 참고문헌의 연대로 유추할 때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고, 70년대 후반 출간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한국의 성풍속 연구가 과제

장 립 에니그의 《영딩이의 역사》(동심원)와 후쿠다 가즈히코의 《요지경 풍속 기행》(강천)은 성풍속서의 전통을 잇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영딩이의 역사》는 인간의 성생활에서 영딩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지 않게 다루고 있지만, 이미 테스먼드 모리스의 《털없는 원숭이》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요지경 풍속 기행》은 '성의 프리즘을 통해 본 예절의 역사' 이기보다는 세계의 성풍속을 가벼운 터치로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성풍속서는 번역물 일색이다. 우리의 성풍속은 《고금소총》류의 야담이나 이규태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성의식을 다루고 있지만 본격적인 성풍속과는 거리가 있다. "모두의 일하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성문제를 학문의 영역, 특히 인류학의 한 분야로 끌어들이자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얼마전 '한국문화와 성'을 주제로 한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전국대회에서 전경수 교수(서울대)는 "출산력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해 평균 성교 횟수를 조사하려다 포기했다"는 자기검열을 토로한 다음, "성은 더 이상 미뤄둘 성질의 것이 아닌 어엿한 인류학의 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이 한데 모여져 한국의 성풍속을 담은 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최성일 기자

빛물에 씻기듯 해맑은 얼굴로 고운 노래를 부른 아내를 휠체어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자랑스레 내려다본다. 몇 년 전 병원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건장한 젊은이와 비록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앉았지만 행복이 넘치는 젊은 아내는 보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사회자는 묻는다. 이 기쁜 날 누구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그녀는 말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께 꼭 드릴 말이 있다고. 명절날 온가족이 모일 때 다른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돕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늘 죄송했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카메라는 눈가에 물이 맺힌 어느 방청객을 비춘다. 빠근하던 내 가슴에도 뜨거운 눈물이 솟는다.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왜 시댁에 가면 여자들만 일해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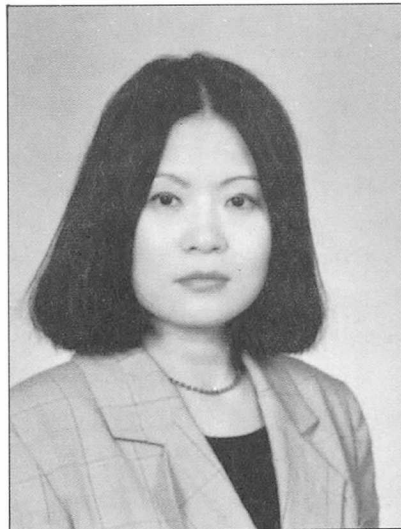
방청객의 저 여자도 이 시대의 많은 여성들처럼 움직일 줄 모르는 귀성행렬의 한가운데서 남편에게 그렇게 물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처럼.

어두운 영화관 숨죽인 공간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되풀이되는 시골 삶의

일상에 파묻혀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 죽은 줄 알았던 중년여인에게 어느날 그 열정이 되살아온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일상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자식들의 삶으로 돌아간다. 오직 단 몇 일 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채,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으로 여성 운동에도 뜻을 같이해온 그 여자는 극장문을 나서며 붉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가린다. 상황과 입장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써 느끼는 사랑의 아픔과 삶의 한계 때문이다.

인간은 얼마나 모순의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인간이 연출해내는 삶은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가. 그래서 여성이 억압받던 시절에 그녀는 어머니로써 아들을 통해 군림해야 했다. 아들이 소중한 어머니는 며느리를 억압했고 그 며느리는 한이 맺혀 아들 낳기만을 기다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남녀의 성비가 깨지고 자연의 조화를 거스르게까지 되었다. 제도에 의해 평등한 교육을 받아도 사회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통로가 막히면 여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욕망과 능력을 발휘한다. 복부인이 되어 땅 값, 아파트 값도 올려놓고 아이들 학교에 치맛바람도 일으킨다.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를 읽는다. 30대 여성의 신혼이야기로부터 50대 여성의 결혼이야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체험담이 담겨 있다. 어떻게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가는가. 어떻게 자아실현을 위해 남편과 시댁을 설득하고 타협하는가. 체험담이란 늘 읽는 이의 경험과 비교되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가며 읽힌다. 그래서 역경이 클수록 감동이 크다. 남편의 학력이 낮은 경우 부딪치는 사회적 편견을 용감히 헤쳐가는 어느 여성의



권택영 교수.

글이 유난히 마음에 남는다.

남성의 경험도 끌어들이고 연령의 차이도 고려하고 좌담회, 체험담, 그리고 종합적인 견해까지 이 책은 다양한 글들을 모았다. 책의 의도가 우리 사회의 획일적인 사고체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완고한 편견을 녹여 벽을 허물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있기 때문이리라.

성실하고 똑똑한 여학생들이 졸업후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보아온 나는 이런 시도가 능력 있는 여성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반갑다. 능력이란 억압하면 왜곡되어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닥 아쉬운은 여성학자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계층을 흡수했으면, 투쟁만이 아닌 더 자유롭고 개성이 존중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어딘가에 종속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이 고려되었으면 등등. 아무래도 내 전공이 문학이어서 그런가 보다. ❖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1
또하나의 문화/A5신/375면/7000원

